

대구 지역의 성범죄 발생 장소의 유형과 특징

-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김재경 · 방나영 · 신예은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 및 연구 동향
 3. 성범죄 발생 장소의 특성
 - 1) 전국의 성범죄 발생 장소
 - 2) 성폭력 장소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 3) 주요 대도시별 성범죄 발생 현황
 - 4) 대구 지역에서 공개된 성범죄자의 분포현황
 4. 대구 지역의 성범죄 발생 장소의 분석
 - 1) 2016년 상반기 성범죄 사례 분석
 - 2) 대구지역 성범죄 지원가의 심층 면담
 5.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향
 - 1) 정책적 대안
 - 2) 개선 방향
 6. 결론
- <참고 문헌>

1. 서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어왔음을 찾아볼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에서부터 대기업 총수, 교수, 군인 등에 이르기까지, 또 많게는 노인에서 적게는 10대 청소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계층과 연령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성범죄는 폭력성 측면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범죄 사건처럼 가학적이고 흉폭화된 경향을 암시하는 사건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성의 측면은 극심하지 않으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적절한 태도와 관행을 암시하는 사건들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폭행이 특정 집단만의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사회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몇 년 동안 성범죄 척결을 위해 전자 발찌 제도나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 성범죄자를 위한 교정 치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 성범죄의 발생 원인이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진단이 다시 한 번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성범죄 발생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 그 중 장소에 초점을 두어 성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성범죄 특히, 성폭행 전문 상담 기관인 ‘대구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 성범죄 발생 장소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발생 장소의 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성범죄라는 명확한 개념 정의와 본고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대구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 성범죄 발생 장소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강간, 성매매, 강제추행(성추행), 성희롱 등이 이에 속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폭행은 강간을 뜻하는 말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성폭행의 하위 범주로 강간, 성매매, 강제추행, 성희롱 등이 있다고 인지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성폭행과 성범죄는 다른 층위이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만을 의미하기에 성범죄의 하위 범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선 성범죄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성범죄 발생 장소의 실제 현황을 통계청 자료와 성범죄 전문 상담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대구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의 성범죄 발생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 성범죄 취약 장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마칠 것이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동향

성범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무수히 많았지만, 우리는 그 중 ‘범죄 지리학’에 관한 「범죄와 두려움의 공간적 특성, 고준호, 2009」와 ‘장소’에 관한 「5대 범죄와의 비교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도시 환경 영향 요인 분석, 이현지, 2012」,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 조윤오, 2015」, 「한국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김지영·정선희, 2011」, 「아동 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박충기, 2009」,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일지역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폭력

실태 비교, 박지은 2016」 6개의 선행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범죄 지리학’에 관한 고준호(2009)의 연구에서는 범죄와 두려움의 지리적 요인을 기초로 하였다.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도시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하며, 절도 범죄의 94.9%가 도시에서 발생하였고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도시가 59.9%, 시골이 48.7%로 도시가 시골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범죄와 두려움은 도시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특정 지역과 장소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다음으로 ‘장소’에 관한 연구로 이현지(201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주거지나 주거지 주변, 길 등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장소들로 방심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청소년들의 활동범위에 관한 감시의 부재, 비교적 적은 유동인구로 인한 범죄 기회의 증가 등에 있다고 한다.

조운오(2015)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의 45%, 유흥업소나 숙박업소에서 성범죄사건 16%로, 전체 성범죄 61%가 실내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뒤 이어 나오는 선행 연구와도 상당한 일치성을 보인다. 또 성 범죄자가 사용하는 범죄 현장이동 방법에는 도보로 걸어가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에서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덮치는 경우가 전체의 16.7%에 해당한다.

김지영·정선희(2011)에서는 연쇄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그 초점을 두었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6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노래방, 유흥주점,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2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둘은 모두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범죄가 주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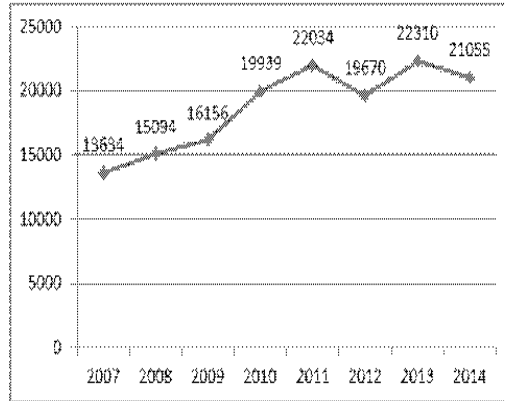
다음으로 박충기(2009)는 60% 이상의 성범죄가 주택이 밀집한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유흥주점과 같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성범죄 발생율은 약 22%로 거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이 ‘가해자의 거주지 및 직장 부근’으로 주로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죄자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율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의 95%가 범죄자의 주거지 78km 이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100m 이내에서의 성범죄는 17.7%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지은(2016)는 아동·청소년의 성폭행이 면식과 비면식에 따라 발생빈도와 발생장소에 차이를 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면식과 비면식에 따라 피해 종류, 발생빈도, 발생장소 및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면식일 때, 이 둘의 주거지 일치도가 높았는데 이는 발생 장소가 주로 실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6개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면식인 경우가 비면식인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또, 실외가 아닌 주로 실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범죄 지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범죄의 발생이 도시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정 지역과 장소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대구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의 성범죄 발생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 성범죄 취약 장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범죄 지리학에서 말한 특정 장소 즉, 성범죄 취약 장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나아가 대구라는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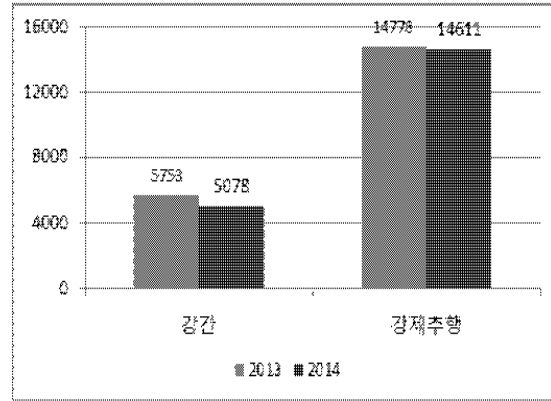
3. 성범죄 발생 장소의 특성

1) 전국의 성범죄 발생 장소



출처 : 통계청(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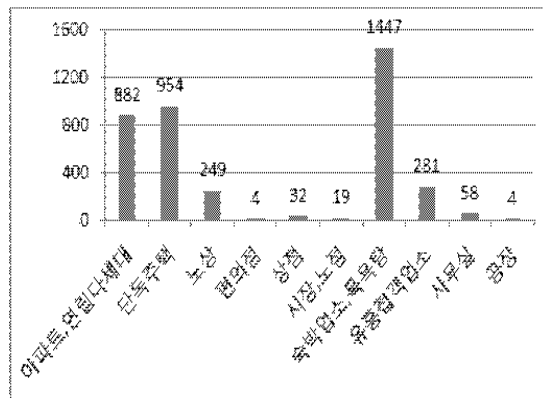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



출처 : 통계청(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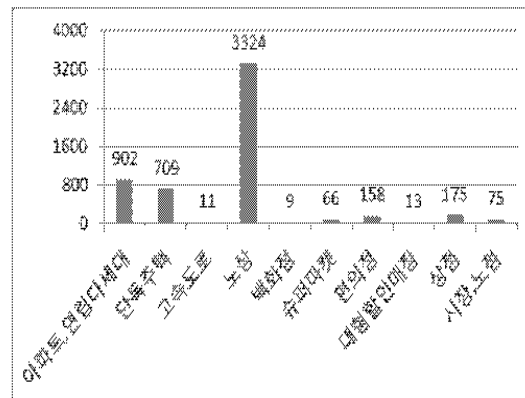
<그림 2> 장소별 전체 발생건수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는 <그림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중 강간과 강제추행을 살펴봤을 때 <그림 2>와 같다. 우리나라의 장소별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전체 발생 건수는 2013년도에 강간 5,753건, 강제추행 14,778건이고, 2014년도에 강간 5,078건, 강제추행 14,611건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이 강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13년도와의 비교에서 볼 때 2014년도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건수가 조금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통계청(2014)

<그림 3> 장소별 강간 발생건수



출처 : 통계청(2014)

<그림 4> 장소별 강제추행 발생건수

세부적으로 장소별 강간의 발생 건수를 <그림 3>를 통해 살펴보겠다. 1,447건으로 숙박업소와 목욕탕에서 강간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뒤를 이어 단독주택(954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882건)가 비슷한 건수로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유흥접객업소(281건), 노상(249건), 사무실(58건), 상점(32건), 시장과 노점(19건), 편의점(4건), 공장(4건) 순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강간은 주로 노상과 같은 실외보다는 숙박업소와 목욕탕,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유흥접객업소와 같은 실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단독주택과 같은 거주 지역에서 강간이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별 강제추행의 발생 건수는 <그림 4>와 같다. 노상이 3324건으로 월등히 높은 발생 건수를 보이며, 그 뒤를 이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902건), 단독주택(790건)이 별 차이 나지 않는 발생 건수를 보인다. 그 다음은 상점(175건), 편의점(158건), 고속도로(11건), 시장과 노점(75건), 슈퍼마켓(66건), 대형 할인매장(13건), 백화점(9건) 순이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강제 추행은 강간과 반대로 노상과 같은 실외에서 월등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폭력 장소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1)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선행연구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했을 때, 성범죄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1>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계	유형	아는 사람 1,110(85.0)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87(14.3)		직장	친밀 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 자	학교	유치 원/학 원	주변 인의 지인	소개 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 척													
2015년		166 (12.7)	21 (1.6)	336 (25.7)	135 (10.3)	42 (3.2)	72 (5.5)	55 (4.2)	150 (11.5)	23 (1.8)	80 (6.1)	11 (0.8)	19 (1.5)	119 (9.0)	79 (6.0)	1,308 (100)
2014년		107 (7.4)	94 (6.5)	300 (20.7)	130 (9.0)	55 (3.8)	118 (8.1)	60 (4.1)	120 (8.3)	31 (2.1)	109 (7.5)	19 (1.3)	31 (2.1)	132 (9.1)	144 (10.0)	1,450 (100)
성인 (20세 이상)		31 (3.3)	7 (0.7)	327 (34.7)	114 (12.0)	26 (2.8)	45 (4.8)	47 (5.0)	88 (9.3)	4 (0.4)	70 (7.4)	11 (1.2)	16 (1.7)	98 (10.4)	59 (6.3)	943 (100.0)
청소년 (19세~14세)		42 (22.0)	6 (3.1)	6 (3.1)	19 (10.0)	14 (7.3)	16 (8.4)	6 (3.1)	45 (23.6)	10 (5.2)	7 (3.7)	0 (0.0)	3 (1.6)	10 (5.2)	7 (3.7)	191 (100.0)
어린이 (13세~8세)		69 (60.5)	6 (5.2)	0 (0.0)	0 (0.0)	2 (1.8)	8 (7.0)	2 (1.8)	17 (15.0)	3 (2.6)	1 (0.9)	0 (0.0)	0 (0.0)	4 (3.5)	2 (1.7)	114 (100.0)
유아 (7세 이하)		23 (53.5)	2 (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5.0)	0 (0.0)	0 (0.0)	5 (11.0)	11 (25.5)	43 (100.0)
미상		1 (4.1)	0 (0.0)	3 (12.5)	2 (8.3)	0 (0.0)	0 (0.0)	0 (0.0)	0 (0.0)	0 (0.0)	2 (8.3)	0 (0.0)	0 (0.0)	5 (20.8)	11 (46.0)	24 (100.0)

출처: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표 1>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110건(85.0%)으로 가장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가 면식일 경우에는 발생 장소에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면식일 경우에는 장소가 실외보다는 실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여성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두지만,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경계를 두지 않고 성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은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27건(34.7%)으로, 성인 피해의 약 1/3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최근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의식이 변화되지 않아 회사자리 또는 회사의 은밀한 장소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총 55건(28.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총 48건(25.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2014년 각각 52.4%, 44.4%대에서 2015년 65.7%, 58.5%로 상승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학교’와 ‘직장’ 내 관계도 2014년도 각각 8.3%, 20.7%에서 2015년 11.5%, 25.7%로 상승하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학교에서 여교사의 성폭행도 찾아지고 있다. 최근 이슈화 된 사건인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네사람’과 ‘주변인의 지인’ 관계인 경우 예년에 비하여 각각 46건(2.6%감소), 29건(1.4%감소) 감소하였다. 관계 미상의 건수는 총 24건으로 2014년에 비해 56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가해자가 면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준강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준강간에 속한다. 다음 표는 준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표이다.

<표 2> 준강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유형 계	아는 사람 86 (78.4)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전대이트 상대	현대이트 상대	채팅	동호회	소개	동네 사람	주변의 지인	직장	학교	학원			
성인 (20세이상)	1 (0.9)	4 (3.6)	6 (5.4)	3 (2.7)	1 (0.9)	3 (2.7)	2 (1.8)	14 (12.6)	37 (33.3)	9 (8.1)	3 (2.7)	18 (16.2)	6 (5.4)	107 (96.4)
청소년 (19세-14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0 (0.0)	0 (0.0)	2 (1.8)	0 (0.0)	0 (0.0)	1 (0.9)	4 (3.6)
총계	1 (0.9)	4 (3.6)	6 (5.4)	3 (2.7)	1 (0.9)	3 (2.7)	3 (2.7)	14 (12.6)	37 (33.3)	11 (9.9)	3 (2.7)	18 (16.2)	7 (6.3)	111 (100.0)

출처: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표 2> 준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8.4%였고, 그 중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 관계(고용주, 상사, 동료, 거래처 등)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율이 33.3%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 여기서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정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강간은 피해자가 만취인 상태가 많으며, 회사에서 준강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회식자리가 잦기 때문이다.

(3) 준강간 피해 발생 장소

<표 3> 연령별 준강간 피해 발생 장소에서는 숙박업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이 20.7%였다. 이는 <표 2> 준강간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면식인 경우가 높다는 점에서 <표 3> 준강간 피해 발생 장소와 상관관계가 높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아는 관계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표 3> 준강간 피해 발생 장소

발생장소 연령대	준강간 상담 건수	DVD 방	노래 방	놀이 터	가해 자집	숙박 업소	마사 지실	피해 자의 집	피해 자의 직장	클럽 업 계단	옥상	지인 의 집	미상
-------------	-----------------	----------	---------	---------	----------	----------	----------	---------------	----------------	---------------	----	-----------	----

성인 (20세 이상)	111 (100.0)	2 (1.8)	2 (1.8)	1 (0.9)	23 (20.7)	50 (45.0)	1 (0.9)	10 (9.0)	2 (1.8)	1 (0.9)	0 (0.0)	2 (1.8)	14 (12.6)
----------------	----------------	------------	------------	------------	--------------	--------------	------------	-------------	------------	------------	------------	------------	--------------

출처: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표 3> 준강간 피해 발생 장소를 보면 DVD방, 가해자집, 숙박업소, 마사지실, 피해자의 집, 지인의 집 등 대부분 실내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 중에서 숙박업소, 가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놀이터는 실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연도에는 발생빈도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발생장소를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중에 실내에는 면식범이 많으므로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한다.

3) 주요 대도시별 성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의 지역별 범죄발생현황 중 성범죄 발생현황, 특히 우리나라 서울과 광역시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발생건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서울과 광역시별 총성범죄 발생건수, 강간 발생건수 그리고 강제추행의 발생건수와 인구 천 명 당 총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의 발생건수를 비교해 볼 것이다. 인구 천 명당 총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은 발생건수/인구 천명단위로 계산하였다.

<표 4> 서울과 광역시의 총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의 발생건수와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

도시	인구	총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발생건수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
서울	10,078,850	5356	0.53	970	0.10	1268	0.13
인천	2,925,815	1267	0.43	305	0.10	927	0.32
대전	1,518,775	561	0.37	183	0.12	365	0.24
대구	2,487,829	881	0.35	215	0.09	645	0.26
광주	1,742,199	729	0.42	217	0.12	494	0.28
울산	1,173,534	436	0.37	131	0.11	295	0.25
부산	3,557,716	1404	0.39	383	0.11	998	0.28

출처 : 경찰청 2015 성범죄 자료

<표 4> 서울과 광역시의 총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의 발생건수와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에서 총성범죄 발생건수를 먼저 살펴보면, 서울이 5356건수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 1404건, 인천광역시 1267건, 대구광역시 881건, 광주광역시 729건, 대전광역시 561건,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436건으로 울산광역시가 광역시 중 총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인구 천 명당 총성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인천, 광주, 부산, 울산과 대전, 대구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인구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인구 천 명당 총성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총성범죄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 서울과 광역시의 총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의 발생건수와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에서 강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3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광역시가 383건, 인천광역시 305건, 광주광역시 217건, 대구광역시 215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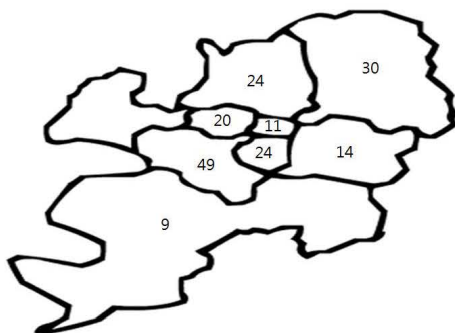
전광역시 183건,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131건 순으로 강간이 적게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인구 천 명당 강간 발생건수를 보면, 광주와 대전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울산과 부산, 서울과 인천, 마지막으로 대구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인구 천 명당 강간 발생건수를 비교해서 보면, 강간 또한 대구광역시가 인천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서울과 광역시의 총성범죄, 강간, 강제추행의 발생건수와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에서 강제추행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2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광역시 998건, 인천광역시 927건, 대구광역시 645건, 광주광역시 494건, 대전광역시 365건,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295건 순으로 강제추행이 적게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인구 천 명당 강제추행의 발생건수를 보면, 인천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광주와 부산, 대구와 울산, 대전, 서울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인구 천 명당 강제추행 발생건수를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대구광역시가 적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의 총성범죄, 강간 그리고 강제추행의 발생건수와 인구 천 명당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인천광역시보다 확연히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건수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대구광역시의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을 시,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성범죄가 발생한 이유를 여성의 부주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향하는 사회적인 시선도 다양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가 인천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범죄 발생건수가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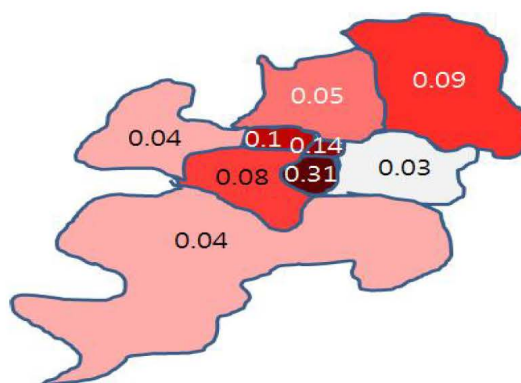
4) 대구 지역에서 공개된 성범죄자의 분포현황

성범죄자 e-알리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구광역시의 성범죄자 수를 살펴볼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각 구 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성범죄자 e-알리미(~2016년 11월 3일 현재)

<그림 5> 대구광역시 각 구별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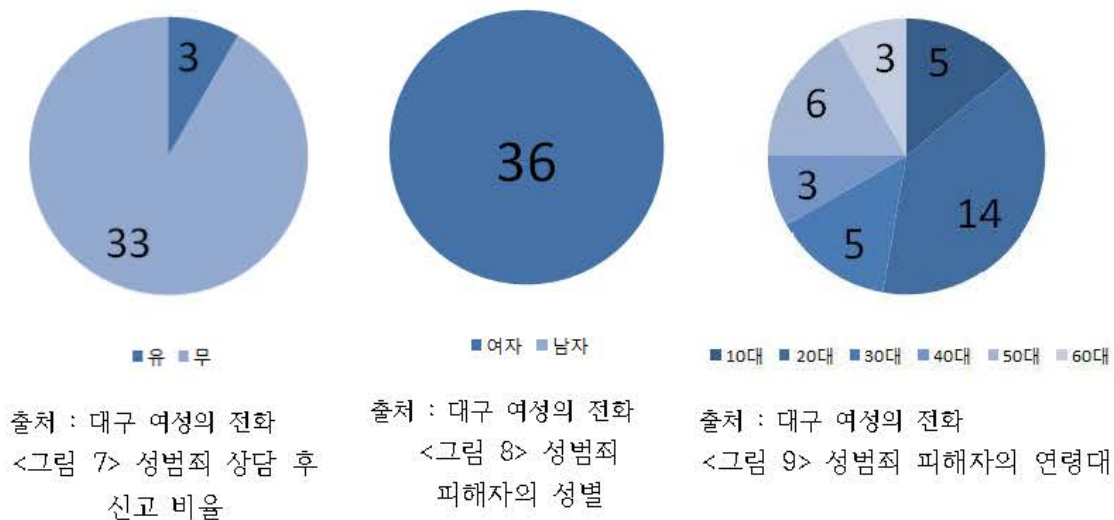
<그림 6>대구광역시 구별 인구 천 명당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

<그림 5>대구광역시 각 구별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를 보면, 총 181명으로 조사된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달서구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는 49명에 달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동구 30명, 남구와 북구 24명, 서구 20명, 수성구 14명, 중구 11명, 마지막으로 달성군 9명 순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가 적다.

<그림 6> 대구광역시 구별 인구 천 명당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는 대구광역시 각 구별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각 구별 인구 천명단위로 계산하였다. <그림 3>에 따르면, 남구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가 많고 그 뒤를 이어 중구, 서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순으로 적다. 이는 성범죄자의 활동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와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의 연관성이 존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대구광역시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가 가장 많은 남구가 성범죄의 빈도가 가장 높게 발생할 것이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가 가장 적은 달성군이 성범죄의 빈도가 가장 낮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 대구 지역의 성범죄 발생 장소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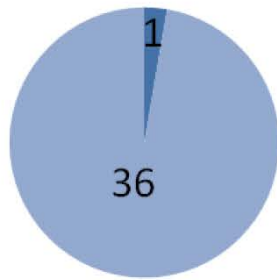
1) 2016년 상반기 성범죄 사례 분석



대구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2016년 상반기 성범죄 36건에 대한 사례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범죄 상담 후 성범죄의 신고 비율은 <그림 7>과 같이 신고를 하는 것보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은 성범죄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 관한 것으로 <그림 8>와 <그림 9>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관해 살펴보겠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36건 모두 여성이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성범죄 가해자의 성별이 모두 남성인 것이다. 실제로 뒤따르는 <그림 10>와 비교해 볼 때 공범인 여자 1명의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대다수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인 피해 여성의 연령대는 <그림 9>에서 본 바와 같이 14건으로 20대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6건으로 많았으며, 10대와 30대가 동일하게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것을 종합해 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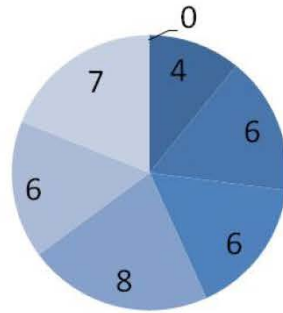
을 때 성범죄는 20 ~ 30대의 사회적 활동량이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많이 나타났음을 헤아려볼 수 있다.



■ 여자 ■ 남자

출처 : 대구 여성의 전화

<그림 10> 성범죄
가해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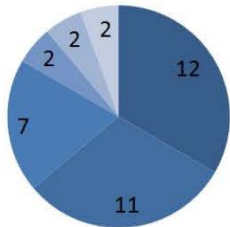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미파악

출처 : 대구 여성의 전화

<그림 11>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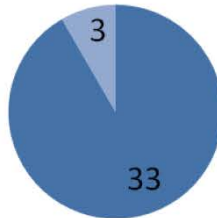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자의 성별은 <그림 10>의 내용처럼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대는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여 한 연령대를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굳이 꼽자면 50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0대와 40대 그리고 60대가 각각 6건으로 동일하였다. 이것은 가장 많은 50대와 비교해봤을 때 단 2건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이들의 연령대를 무시할 수 없다. 또, 연령대를 파악할 수 없는 건수도 7건이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의 두드러진 연령대를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 직장 ■ 집 ■ 숙박시설 ■ 대중교통 ■ 종교시설 ■ 공원

출처 : 대구 여성의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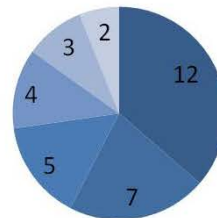
<그림 12> 성범죄 발생장소



■ 면식 ■ 비면식

출처 : 대구 여성의 전화

<그림 13>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직장관계자 ■ 애인 ■ 친인척 ■ 학교선후배 ■ 교직원 ■ 종교인

출처 : 대구 여성의 전화

<그림 14>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관계

마지막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직장(12건), 집(11건), 숙박시설(7건), 대중교통, 종교시설, 공원 순이며, 대중교통, 종교시설, 공원은 각각 2건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들은 다시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볼 때 직장, 집, 숙박시설, 종교시설인 실내가 모두 32건으로 대중교통, 공원과 같은 실외보다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서로 관련이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3>과 같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면식인 경우가 비면식인 경우보다 확연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성범죄의 주요 발생 장소가 실외보다 성범죄를 행하기 쉬운 은밀한

공간인 실내가 많은 이유에 해당한다.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얼굴을 알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식인 경우를 좀 더 세세히 살펴보면 <그림 14>과 같다.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관계는 직장 관계자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애인, 친인척, 학교 선후배, 교직원, 종교인 순이다. 면식 관계에 있어서 직장 관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와 관련성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는 주로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직장 관계가 면식 관계에 있어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

2) 대구지역 성범죄 지원가의 심층 면담

(1) ‘대구 여성의 전화’ 자원 활동가 대상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자원 활동가와 심층 면담을 1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심층 면담을 하였다. 이 중에 4가지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고, 6가지는 비장소에 대한 면담과 혼합되어있는 질문이었다.

우선, 장소에 대한 질문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와 장소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성범죄 장소는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눌 수 있다. 실외에서는 공원이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대구시에서 성범죄 비율이 높은 동네들을 살펴보면, 폐쇄적이고 인적이 드문 곳일수록 성범죄의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여 실외에서의 성범죄 노출을 예방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실외에 대한 대안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최근에는 실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해자가 면식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성범죄 가해자가 면식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실내로 유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인 실내에서 많이 일어난다. 성범죄는 실외에 대한 대안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실내에 대한 대안은 아직 미비하다. 피해자의 면식범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성범죄가 실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내에서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이제껏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어디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이 일을 한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접한 장소는 회사이다.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회사에서의 성범죄가 많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성범죄는 성추행 정도에서 그친다. 회사의 성범죄 장소는 상사의 개인 사무실, 계단, 엘리베이터, 회식장소 등에서 자주 일어난다.” 라고 답하였다.

세 번째,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성범죄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슈화 된 사건은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마을 주민 3명이 신입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혔다. 학교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들을 떠올리지만, 여자선생님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네 번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의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성범죄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면식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실외인 골

목길이나 공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유인하기 쉬운 주거시설, 숙박업소 등 실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외에서 일어나면 성범죄의 수위는 약간 편이지만, 실내에서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수위가 높다. 그러므로 실내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면 실외장소의 대안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외장소는 안전하게 환경조성을 하면 효과적이지만, 실내장소는 환경조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내에서의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식범에 의해 실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실내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인식 개선이다. 여성들이 아는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많이 도와야 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비장소에 대한 6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성의 전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인권부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심리·정서 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가족상담, 수사과정 지원, 성폭력 생존자 소모임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성폭력 상담이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말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안내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최근에 성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과거에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성폭행 당한 사람으로 낙인 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법규도 많이 좋아짐으로써 여성들이 묵인하지 않고 고소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범죄사실을 묵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계상으로는 성범죄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범죄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피해자가 무고 범죄자가 되는 사례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검사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무고로 인지하여 피해자가 무고 범죄자가 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검사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여 이러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건도 있다. 성범죄를 신고하면 그중에 기소되는 게 50%미만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여성들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여성의 몸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였다.

네 번째,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 이슈화 되고 있다. 데이트 성폭력은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면식인 경우가 85%이상인데 이중에 10%가 데이트 폭력이다. 최근에 새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으로 앞으로 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라고 답하였다.

다섯 번째, 지금 성범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현재 법규는 많이 좋아짐으로써 여성이 묵인하지 않고 고소하는 건수는 해마

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무고로 인지되는 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무고 인지가 되어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마무리하고 무고 인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지도 않고 무고 인증을 하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더욱더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다. 성범죄 장소에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실외에 대한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어서 공원, 골목길 같은 곳에서의 성범죄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실내는 개인적인 공간이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실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성범죄율은 많이 감소할 것 같다.” 라고 답하였다.

여섯 번째, 상담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자원 활동가는 “첫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렵다. 아직까지도 여자의 몸가짐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또한 피해자 시선에서 바라보는 재판부나 수사법적인 부분에서 아직 많이 미비하다.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청소년들마저도 여성 청소년은 아직도 성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가해자가 면식범이 많기 많아 피해자의 죄책감이 가중되어 상담 시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면식인 경우에는 경계를 두거나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또한 성폭력을 당하면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 이를 성폭력의 2차 피해라고 하는데, 1차 피해보다 더 힘들어 한다. 이때는 상담을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라고 답하였다.

(2)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대상

대구시 여성·청소년 전담 경찰관과 성범죄 장소에 대한 질문 9가지를 가지고 심층면담을 하였다.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는 신고하기 전에 상담을 해주는 자원 활동가와 면담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한 후에 사건을 분석하는 사람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답변이 나왔다.

첫 번째, 경찰관 일을 하시면서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접하셨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여성에 관한 성범죄 사건은 많이 접했다. 성범죄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보니 성추행부터 공연음란죄, 성희롱도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최근에 성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성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선, 사회가 발전하고 디지털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이용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는 만큼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걸로 보여 진다.” 라고 답하였다.

세 번째,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와 장소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장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성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셉테드 등의 기법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 등을 이용하여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네 번째, 이제껏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어디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주로 집, 원룸촌, 지하철 등이 가장 많았다. 방금 언급한 장소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다섯 번째,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범죄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나 회사에서의 성추행 등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여섯 번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과거에는 공원과 같은 곳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둡고 공개적인 곳은 경찰들의 순찰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범죄자들도 지능화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공원과 같은 장소는 피한다.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이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과 붐비지 않는 곳이다. 즉,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시설이고,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곳은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의 실내이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성추행 정도의 사건이 많다. 이러한 장소에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습관적인 범죄로 범인들이 죄책감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우선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를 경찰이 24시간 지켜볼 수 는 없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사회에 만연하는 범죄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부착하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도 많이 논의 중이고, 여성들의 귀갓길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중이다.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인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에서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공간은 경찰이 개입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모든 범죄가 면식범이 많아짐으로써 장소도 개인적인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일곱 번째, 최근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면식범인 경우가 약 85%라는 통계결과가 나오는데 면식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가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잘 알고 그 취약점을 파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하다고 하여 무방비한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마음을 놓고 믿는 경향이 많아 문제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 면식범 가해자들은 계획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그전에 여성들이 면식범이 불려서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자의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만 있어도 법정에서 유리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면, 타의적으로 들어갔다는 문자라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 라고 답하였다.

여덟 번째, 최근에는 성범죄가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면식범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답하였다.

아홉 번째, 지금 성범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성폭력을 4대악으로 지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 대구시에는 특별형사대라는 특별팀이 있다. 경찰관 기동대를 하나의 특별팀으로 전환한 것으로, 특별형사대를 신설하고 2개월여 만에 지난 해 대비 20%이상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검거 건수는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성범죄 특별팀도 있지만 이러한 특별팀들을 신설하여 성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에 강남역 묻지마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생겼다. 여성들의 안전과 귀갓길을 책임지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야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하였다.

자원 활동가와 경찰관의 답변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답변이 나왔다. 여성의 전화의 자원 활동가는 주로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를 접하게 되므로 다양한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의 경우에는 신고가 된 사건만 접하게 되므로 자원 활동가보다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적었다. 자원 활동가는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내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는 이미 심적으로 지친 상태인데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질문을 유도하면 휩쓸려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해도 무조건 신고하라고 답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여성들이 성범죄를 접하게 되더라도 신고를 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활동가와 경찰관의 답변은 완전히 같을 수가 없다.

우선, 자원 활동가와 경찰관의 공통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공통된 답변을 얻었다. 두 답변자는 과거에는 공원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면식범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실내에서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실내인 경우에는 실외인 경우보다 성범죄의 수위가 높다고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자원 활동가와 경찰관의 차별화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답변을 얻었다. 자원 활동가는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되면서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묵인하지 않고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지만, 경찰관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범죄가 지능화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범죄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와 장소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답변을 얻었다. 자원 활동가는 폐쇄적이고 인적이 드문 장소일수록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경찰관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과 같은 장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소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성범죄 발생 장소와 이슈화 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답변을 얻었다. 자원 활동가는 주로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많이 접하였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장소 학교라고 답변하였지만, 경찰관은 집, 원룸촌, 지하철 등을 많이 접하였고 이슈화되고 있는 장소는 지하철이나 버스라고 답변하였다.

5.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향

1) 정책적 대안

경찰관 면담을 통해 발견한 최근 실행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하철 공중화장실에 CCTV설치 등 점검하는 대안이 있다. 최근에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화장실범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공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 폰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비콘을 설치하는 대책도 보편화되고 있다.

두 번째, 경찰서 범죄예방전담팀(CPO)를 전국에 확대하여 안심귀가길 지정 후 경찰 집중 투입하는 대안이 있다. 경찰청은 최근 2개월간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용하던 ‘범죄 예방전담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였다. 3명 남짓으로 구성되는 CPO는 최근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전국에 확대 신설되었다. 이들은 소속 관서가 관할하는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물리적 환경을 진단해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과 함께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후에 여성대상 범죄 취약장소·요인을 스마트 국민 제보앱에 ‘여성 불안 신고’ 코너를 신설하여 제보를 받는 등의 성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번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대안이 있다. 최근 성범죄의 급증으로 여성의 불감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위해를 느끼는 여성에 대해 112신고센터에 자동 연결되는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가 지급되고 있다. 이는 원터치 112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로써 위급 상황 시 구조요청 단추를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보호자등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와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되는 신변보호용 장치이다. 또한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강제수신 되어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위해우려 요인 제거 및 보호여성의 심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안요소가 모두 해소되는 그날까지 지급한다.

네 번째, 셉테드 기법으로 환경설계를 하는 대안이 있다. 셉테드 기법은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두면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로 한 환경설계 범죄예방 기법이다. 이는 범죄 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하여 예방한다.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범죄예방 기법을 말한다. 셉테드 기법의 기본 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등이 있다.

자연적 감시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이웃주민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주택의 경우 주택내부와 내부에서 모두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 행위 발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침입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놀이터, 공원 등의 공공장소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조망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의 중심에 설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고립지역의 경우에는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로등의 간격과 조도, 투사각도 등에 대한 고려 등 적절한 조명의 설치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정해진 출입구로만 통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정도를 높여 접근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접근통제를 위해서 인위적인 통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통제하거나 신원확인 이후 차량을 출입시킬 수 있다.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법창이나 창문 차단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영역성 강화는 영역 구분을 위해 경계선을 표시하여 침입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여 범죄인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고, 사적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유의식을 강화시켜 범죄에 대항할 수 있다. 영역성 강화의 예로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울타리, 표지판, 조경, 도로경계석의 설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성 증대는 거리의 눈에 의한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장소에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활발히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이들 ‘거리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죄인은 자연히 범죄 실행에 부담을 가질 것이고, 이는 범죄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실제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 내에 밤길이 어둡고 범죄 신고가 많은 지역에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여성안심 귀갓길 20개 구간을 조성하였다. 50~70m 간격으로 발광다이오드 방범등과 현재 위치를 신고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다.

(2) 개선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적 대안에는 실외에 관한 것이 대다수이다. 과거, 실외에서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이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많이 만들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실외에서의 성범죄는 눈에 띄이게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아직 미비한 관계로 본고에서는 실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따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

본고에서 생각한 실내에 대한 개선 방안은 개인 휴대전화의 긴급 전화 목록에 성범죄 전문 기관의 번호를 추가하는 것과 성범죄 스마트 앱 개발, 숙박시설에서의 112 버튼 설치가 있다. 먼저 긴급 전화 목록에 성범죄 전문 기관의 번호를 추가하는 것은 성범죄를 당하고 있을 당시에 아주 유용한 개선 방안이다. 또 이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112와 119는 휴대전화 긴급 전화 목록에 언제나 입력되어 있는 번호이다. 그렇기에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바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 실내나 실외에서 긴급 전화 목록을 활용하는 것은 실내, 실외에서의 성범죄율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현장 검거에도 유리하기에 시행될 필요가 있는 개선 방안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스마트 앱 개발이다. 스마트 앱 개발에는 성범죄 사이렌 앱 개발이 있다. 사이렌 앱을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앱이 활성화되어 화면 상단에 사이렌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된다. 실내에서 자신이 성범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시에 화면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렌 소리가 크게 퍼지게 되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다. 사이렌의 소리는 보통의 벨소리의 음량보다 더 큰 음량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위치가 경찰로 전송이 되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숙박시설에서의 112 버튼 설치 의무화이다. 어떠한 통계자료를 살펴봐도 여러 성범죄 장소 중에서 숙박시설은 항상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여성들이 숙박시설에서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숙박업소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여성들의 숙박업소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따라

서 숙박시설마다 112버튼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여성들이 실내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자면, 앞서 언급한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숙박시설로 인해 여성들은 숙박시설과 같은 위험한 공간에 가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숙박시설이 이중적인 공간이 되지 않게 범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6. 결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어왔으며 최근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에서부터 대기업 총수, 교수, 군인 등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는 끊임 없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범죄 발생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 그 중 장소에 초점을 두어 성범죄를 살펴보았다. 성범죄 특히, 성폭행 전문 상담 기관인 ‘대구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 성범죄 발생 장소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발생 장소의 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범죄 발생 장소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외보다는 숙박업소나 직장, 공중 화장실 등 실내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앞선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결과이며, 통계청이나 성폭력 상담소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서로 관련이 있는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면식인 경우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얼굴을 알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는 현재 실외에 관한 것이 대다수이다. 실내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아직 미비한 관계로 최근 성범죄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한 개인 휴대전화의 긴급 전화 목록에 성범죄 전문 기관의 번호를 추가하는 것, 성범죄 스마트 앱 개발, 숙박시설에서의 112 버튼 설치 의무화와 같은 실내에 관한 성범죄 개선 방안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어 증가하는 성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고준호, 2009. “범죄와 두려움의 공간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 김지영 · 정선희, 2011. “한국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0권 제2호 통권 제4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pp.37-58.
- 대검찰청, 2015.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박지은, 2016.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일지역의 아동 · 청소년 및 성인 성폭력 실태 비교”, 경북대학교.
- 박충기, 2009. “아동 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현지, 2012. “5대 범죄와의 비교를 통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도시 환경 영향 요인 분석” 세종대학교.
- 조윤오, 2015. “성 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1호 통권50호, 한국경찰학회, pp.157-184.
- 경찰청 : <http://www.police.go.kr/main.html>

네이버 사전 : <http://dic.naver.com/>

대구통계정보 : <http://www.daegu.go.kr/>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

통계청 : <http://kosis.kr>

한국성폭력상담소 : www.sisters.or.kr